

사회적 자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송진영
(성결대학교)

본 연구는 신뢰와 자원봉사활동으로 구성된 사회적 자본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에서 구축한 제7차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3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신뢰와 자원봉사활동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가족관계만족도는 신뢰와 우울 간의 영향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셋째, 가족관계만족도는 직업이 있는 대상자의 자원봉사활동과 우울 간의 영향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반면, 직업이 없는 대상자의 자원봉사활동과 우울 간에는 매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자본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과 가족관계만족도의 향상을 통해 그들의 우울을 완화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주요용어: 사회적 자본, 신뢰, 자원봉사활동, 우울, 가족관계만족도

■ 투고일: 2015.4.23 ■ 수정일: 2015.5.26 ■ 게재확정일: 2015.6.18

I. 서론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는 66만 5천명으로 2009년 55만 6천명에 비해 19.6%가 증가하였고, 2005년 43만 5천명에 비해 52.8%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이 5%대에 달한다고 하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 그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울증 점유율은 2013년을 기준으로 70대 이상이 22.2%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21.0%, 60대가 17.4%, 40대가 15.7%, 30대가 11.3%, 20대가 7.7%, 20세 미만이 4.6%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30세 이상 성인의 우울증 점유율이 87.7%로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울증은 여러 원인들에 의해 우울감 및 의욕 저하 등이 나타나는 정신적 질환으로 수면 장애나 불안, 성욕 및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또한 우울증은 협심증, 관절염,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과 맞먹을 정도로 건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다른 질병 특히, 만성 질환을 함께 겪을 때 건강에 더욱 나쁜 영향을 미친다(Moussavi et al., 2007). 또한 심한 우울증은 극단적으로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통계청의 「2013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4,427명으로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는 29명이며, 성별로는 남성 10,060명, 여성 4,367명으로 남성 사망자가 여성보다 2배 이상 많은 실정이다(통계청, 2013).

지금까지 우울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노인, 중년, 청소년과 같은 특정 연령 집단에 국한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노년기 우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보고되고 있다(고승덕 외, 2001; 손용진, 2010; 염소림·최유석, 2014; 추지은 외, 2014; Yang, 2007). 반면 김진영(2009)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우울증 양상은 중년기에 조기퇴직, 은퇴 등 서구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며, 자녀 양육과 교육비, 자녀 혼인 시 재정 지원에 대한 부담 등의 이유로 인해 우울증이 점차 증가하다가 노년기에 크게 증가한다고 하였다. 성별 또한 우울과 연관성이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4)은 남성의 경우 명예퇴직, 감원 등 사회적 압박으로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많지만, 자존심 때문에 치료 받을 시기를 놓치거나 솔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은 임신, 분만, 폐경기를 겪는 동안 호르몬 변화로 쉽게 우울증에 걸리게 되며, 심리사회적으로 남녀평등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스트레스가 많고,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인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

들이 많아 이런 억압된 감정들이 우울 증상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다. 이 중에서 최근 우울의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념 중의 하나가 사회적 자본이다. Coleman(1990)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은 주어진 구조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특정 행위의 유도를 촉진하며, 다른 형태의 자본과 마찬가지로 생산적이며 공동의 어려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였다. 신뢰와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사회참여는 사회적 자본의 대표적인 요소이다. 우리나라의 신뢰수준은 유럽을 포함하여 OECD 국가들 중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이재열, 2006). 특히,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수준도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약 1/3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통계청, 2014).

가족관계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사였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족관계가 우울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임을 보고하고 있다(조성남, 2004; 이승원 외, 2008; 안지선·전혜정, 2012). 양옥경(2001)과 김동배 외(2010)는 가족관계를 가족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가족 행동의 총체이자 가족 상호작용의 역동과정이며, 가족 관계에서의 만족감은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최근 우리사회는 청년 취업의 어려움과 중년기 이후 은퇴 등의 변화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가족관계 위주로 축소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반되는 우울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가족 관계의 중요성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이승원 외, 2008). 이정현과 성혜영(2009)의 연구에서도 가족관계 만족도의 정도는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사회적 자본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 가족관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일부 보고되고 있지만, 이들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들 간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과 우울 간의 영향관계와 관련한 추가적인 연구들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의 낮은 사회적 자본이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신건강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울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서, 최근 우울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가족관계만족도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우울, 사회적 자본, 가족관계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은 가족관계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배경희와 김석준은 신뢰가 가족관계만족도에 영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김세진과 문수경(2013)은 사회참여

기간이 길수록 가족관계의 만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1)은 노인들에게 사회참여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가족관계의 만족도가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Helliwell(2007)은 신뢰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가정에서의 만족감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 자본이 우울에 영향이 있다는 연구(최미영, 2008; 김동배 외, 2010; 손용진, 2010; 이진향 외, 2011; 엄태완, 2012; 김은령, 2013; 오현옥, 2014; 정은희·강상경, 2014; Thoits & Hewitt, 2001; Crosnoe, 2004; Li & Ferraro, 2005; Brown et al., 2008), 가족관계만족도가 우울에 영향이 있다는 연구(송지은·Marks, 2006; 이승원 외, 2008; 윤지은·전혜정, 2009; 김동배 외, 2010; 조규영·전혜정, 2011; 안지선·전혜정, 2012; Szinovacz, 1998) 등이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자본, 가족관계만족도, 그리고 우울 간의 영향관계에서 우울을 낮추고자 하는 논의가 일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의 연구가 노인, 청소년 등 특정 연령대에 국한하거나, 사회적 자본과 우울에 관한 연구, 가족관계만족도와 우울에 관한 연구 등 단순한 속성 또는 관계 위주의 분석을 함에 따라, 이들 간의 영향관계에서 우울을 낮추고자 하는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울의 다양한 원인 중에 신뢰와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사회적 자본을 원인변수로 선정하여, 사회적 자본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검토하고, 이들 간의 영향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 요인을 찾고자 한다. 즉, 사회적 자본과 우울과의 영향관계에서 우울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을 통해 우울에 대한 실천적 개입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3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과 우울 간 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밝힘으로써, 우리사회의 낮은 사회적 자본으로 인해 낮아진 우울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나아가서는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실천적·정책적인 관점에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가족관계만족도는 사회적 자본과 우울 간에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자본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돈이라는 물질적 자본은 생산설비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생산요소이고, 인적 자본은 지식이나 숙련의 형태로 인간의 두뇌에 내재되어 있는 생산요소라고 하였다. 반면 사회학자들은 이들 물질 자원과 인적자본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면서, 사회적 자본을 사람들 간의 관계에 내재된 제 3의 생산요소라고 정의하였다(박순미, 2000).

사회적 자본 개념의 최초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사람은 Bourdieu(1983), Coleman(1990), Putnam(1993) 등에 의해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의 이론적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Bourdieu(1983)는 사회적 자본을 행위자가 동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규모와 연결된 구성원들 개개인이나 집단이 지속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실체적 또는 잠재적 자원으로서의 네트워크 총합으로 정의하였다(Bourdieu, 1983). Coleman(1990)은 합리적 선택이 사회학적 분석의 근본적 필요조건이라고 믿었으며, 사회적 자본은 사회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이 개인의 합리적 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개인에게 자본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구조적 자원을 지칭한다고 하였다. Putnam(1993)은 사회적 자본을 개인들 간의 호혜적인 협력된 행동을 촉진하여 사회의 효율성을 개선시켜주는 신뢰, 사회참여, 협조와 상호교환의 네트워크 등과 같은 사회조직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사회적 자본 중에서 신뢰와 사회참여에 대해 Putnam(1993)은 신뢰가 구축된 사회에서는 위험률을 낮추려는 행위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자본은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타 부가가치 창출 활동에 투자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시민들의 사회참여가 일반적 호혜성의 규범을 확고하게 증진시키며, 협력과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여 다른 개인 간의 신뢰성에 관한 정보를 확산시킨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 자본은 폭 넓은 이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거시적으로는 규범, 제도 등을 지칭하며, 미시적인 정의는 관계망, 신뢰 등을 포함하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다(문영주, 2011). 특히 공동체의식이 희박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과 신뢰를 쌓고, 위기 시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을 말하며 신뢰와 호혜성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진미정 외, 2009).

2. 사회적 자본과 가족관계만족도 간의 영향관계

가족관계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가족 행동의 총체이자 가족 상호작용의 역동과정으로 정의된다(양옥경, 2001). 이경성(2001)은 가족관계만족은 가족관계의 지속과 해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전체적인 결혼생활과 배우자 및 가족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정의하였다. 백용운과 이태숙(2010)은 가족관계만족도를 가족구성원들이 가족생활 속에서 상호작용 가운데 느끼는 전반적인 만족수준이며, 생활만족도의 하위개념의 하나로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뿐 아니라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친족관계와의 친밀도와도 관계한다고 하였다. 또한 배경희와 김석준(2012)은 가족관계만족도를 자신의 삶의 질 및 자신의 인생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삶의 만족도의 일부분이라고 하였다.

Inglehart(1997)에 따르면 1인당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물질적 측면에서 탈물질적으로 변화하여 삶의 목표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자본에 의해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사회적 자본 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이재열, 2006; 통계청, 2014). 이로 인해 삶의 목표의 충족성 특히 가족생활 속에서 느끼는 만족수준인 가족관계만족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자본과 가족관계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특히 사회적 자본과 가족관계만족도의 상위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는 삶의 만족도와는 어느 정도 연구가 진척되었으나, 사회적 자본과 가족관계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연구한 배경희와 김석준(2012)은 신뢰, 사회참여, 관계망 등의 사회적 자본이 가족관계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중년 이상을 연구한 김동배 외(2010)는 자원봉사를 포함한 사회참여가 가족관계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있는 것을 밝혔다. 송진영(2011)은 노인의 사회참여가 가족관계의 만족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연구에서 96.4%의 노인들이 사회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사회참여를 통해 가족관계만족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가 증가한다고 응답하였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1).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세진과 문수경(2013)은 사회참여기간이 길수록 가족관계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가족관계만족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Uslaner(2002)는 미래를 낙관하고 자신이 사는 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정생활에 더 행복한 전망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Helliwell(2007)의 연구에서는 동료를 신뢰하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신뢰하며 정부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의 만족감이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3. 우울에 대한 사회적 자본과 가족관계만족도의 영향관계

우울이란 정상적인 기분 변화로부터 병적인 상태까지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근심, 침울함, 무력감 및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기분 장애를 의미한다(Battle, 1978). 일반적으로 우울은 심리사회적 기능에서 감기처럼 흔하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기도 하지만, 우울 반응이 심하고 지속될 경우 개인의 심리사회적 기능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무력감을 조성하거나 자살과 같은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의 주요 지표로 본다(김교현, 2004).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는 66만 5천명으로 2005년 43만 5천명에 비해 52.8% 증가하였으며, 30세 이상 성인의 우울증 점유율이 87.7%로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 연령과 우울증의 관계를 연구한 김진영(2009)에 의하면, 북미에서의 양상은 청년기에 우울이 높다가 중년기에 우울이 감소하여 최저점에 이르고 노년기에 다시 증가하는 전형적인 U자형 곡선의 관계인 반면, 한국의 양상은 청년기에 우울이 약간 높긴 하나 중년기와 별 차이가 없는 정도이고, 30대에 최저점에 도달하여 이후 중년기에 걸쳐 점차 증가하다 노년기에 크게 증가하는 비대칭적 형태의 곡선을 따른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차이는 한국의 청년기나 결혼 전후의 시기는 북미에 비해 부모의 경제적 지원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년기 이후에는 조기퇴직, 은퇴 등 서구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며 자녀 양육과 교육비, 자녀 혼인 시 재정 지원에 대한 부담 등이 증가하는데 기인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자본이 우울에 영향이 있다는 보고는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새터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엄태완(2012)은 사회적 자본 중에서 신뢰가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보였다. 노인의 대상으로 한 최미영(2008)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 중에서 신뢰는 우울에 영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사회참여는 우울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보였으며, 김은령(2013)도 사회참여는 우울에 부적인 영향요인임을 밝혔다. 오현옥(2014)은 노인의 사회참여와 신뢰는 우울을 감소시키는 요인임을 밝혔다. 또한 20대 이상의 전 연령대를 분석한 이진향 외(2011)은 신뢰는 우울에 영향을 보였으며, 비공식적 참여는 우울에 영향을 미친 반면, 공식적 참여는 우울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초기성인, 중장년, 노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정은희와 강상경(2014)에 의하면, 세 집단 모두에서 자원봉사활동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자녀의 주양육자와 공동양육자 간 우울을 연구한 김동배 외(2010)에 의하면, 손자녀의 주양육 집단은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한 사회참여가 우울을 낮춰주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금자와 이경혜(2002)는 중년여성이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할수록 우울이 낮아진다는 것을 밝혔다. 국외의 연구에서, Thoits와 Hewitt(2001)와 Li와 Ferraro(2005)는 자원봉사활동이 노인들의 우울증상을 완화시킨 것을 확인하였다. Brown 외(2008)는 배우자 사별 후에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한 사람들은 우울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고 하였으며, Crosnoe(2004)는 신뢰나 사회참여 등의 사회적 자본이 낮을 때, 청소년의 우울이 더 낮아진다고 하였다.

가족관계만족도와 우울 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서병숙과 신효식(1994)은 노인의 가족관계만족도는 우울을 완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윤지은과 전해정(2009)은 가족관계만족도는 중고령자의 우울을 낮추는 요인임을 밝혔다.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이승원 외(2008)도 가족관계만족도가 우울을 낮추는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자녀관계와 부부관계만족도가 우울을 낮추는 주요 요인이었다. 미국의 종단자료를 분석한 송지은과 Marks(2006)에서는 성인자녀에 대한 만족감이 낮은 부모는 우울이 증가하는 것을 밝혔다. 조규영과 전해정(2011)은 부부관계만족도는 우울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중년기의 은퇴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안지선과 전해정(2012)도 부부관계만족도는 우울에 부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김동배 외(2010)는 주양육집단은 가족관계만족도가 우울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동양육집단에서는 가족관계만족도가 우울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Szinovacz(1998)는 공동양육자의 가족관계에서의 불만족이 우울을 증가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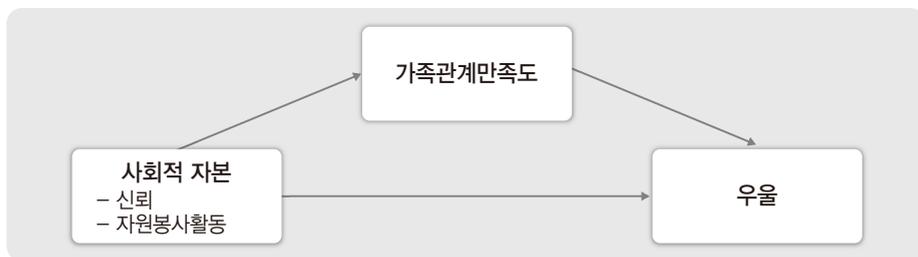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신뢰와 자원봉사활동 등의 사회적 자본이 가족관계만족도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며, 가족관계만족도가 우울에 영향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만족도가 신뢰와 자원봉사활동 등의 사회적 자본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이들 간을 매개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신뢰와 자원봉사활동 등의 사회적 자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모형에 근거하여 구성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신뢰가 높을수록 우울이 낮을 것이다.

가설 2. 자원봉사활동을 할수록 우울이 낮을 것이다.

가설 3. 가족관계만족도는 신뢰와 우울 간을 매개할 것이다.

가설 4. 가족관계만족도는 자원봉사활동과 우울 간을 매개할 것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 활용한 자료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에서 2012년에 구축하여 2013년에 발표한 제7차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조사자료이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시와 제주도를 포함한 9개 도의 가구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표성 있는 중단조사이다. 본 연구에서 제7차 패널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인 신뢰가 제1차, 4차, 7차에서만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7차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조사한 자료 중 결혼하여 동거하고 있는 남녀 6,859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가. 종속변수: 우울

본 연구의 우울 척도로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제공한 Radloff(1977)의 CESD-11 (Center for Epideminological Studied Depression Scale) 척도를 사용하였다. CESD-11 척도는 총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일주일 간 며칠이나 문항에 해당하는 우울감을 느꼈는지에 따라 0점~3점을 부여되어 있으며, 2번 문항과 7번 문항은 역코딩하여 총점을 합산하였다. 따라서 우울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우울의 Cronbach's α 는 .826이었다.

나. 독립변수: 사회적 자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크게 '신뢰'와 '참여'의 두 개념으로 조작화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정의한 여러 학자들이 언급한 공통적인 요소는 신뢰, 참여, 관계망이다(Putnam, 1993).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복지패널에서 사회적 자본으로 정의할 수 있는 변수는 신뢰, 자원봉사활동여부, 자원봉사활동 연간 횟수, 연간 기부 총액 등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자원봉사활동과 기부는 회귀분석 시에 충돌이

발생하여 이 중 하나밖에 분석이 안되는 등 분석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사회적 자본을 타인에 대한 신뢰 1문항(1=신뢰함, 2=신뢰하지 않음)과 사회참여 또는 관계망의 한 방법으로서 자원봉사활동여부 1문항(1=있음, 2=없음)을 사용하였으며, 회귀분석을 위해 신뢰는 '0=신뢰하지 않음, 1=신뢰함', 자원봉사활동여부는 '0=없음, 1=있음'으로 각각 더미처리하였다.

다. 매개변수: 가족관계만족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관계만족도는 가족생활, 배우자, 자녀, 자녀들의 형제자매 관계에 대한 만족도 등의 4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변수들은 '1=매우 만족하지 않는다'에서 '7=매우 만족한다'의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4개의 변수의 평균(mean function)을 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관계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가족관계만족도의 cronbach's α 는 .810로 나타났다.

라.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제변수 중 성별은 회귀분석을 위해 '0=여성, 1=남성'으로 더미 처리하였으며, 저소득층가족여부도 '0=저소득층가구, 1=일반가구'로 더미처리하였다. 연령은 빈도분석에서는 '1=30대, 2=40대, 3=50대, 4=60대, 5=70대'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회귀분석에서는 연속형 변수인 연령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학력은 '1=초등학교 졸업, 2=중학교 졸업, 3=고등학교 졸업, 4=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종교는 '0=없음, 1=있음'으로 더미처리하였다. 건강상태는 '1=매우 건강하다'에서 '5=매우 건강하지 않다'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척도와의 일관성을 위해 역체점하였으며, 따라서 건강상태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함을 의미한다. 만성질환여부는 '0=없음, 1=있음'으로 더미처리하였고, 직업유무는 '0=없음, 1=있음'으로 더미처리하였으며, 음주여부는 '0=마시지 않음, 1=마삼'으로 더미처리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자료 분석방법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사항은 빈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변수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분석하고, 본 연구의 척도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사회적 자본과 우울 간의 영향력 및 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밝히기 위해 Preacher와 Hayes(2008)가 개발한 SPSS Indirect macro를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자본을 연구한 일부 연구에서 직업활동이 자원봉사활동에 부적(-)인 영향이 있다는 결과(강영배과 김기현, 2004)와 근로시간이 자원봉사활동에 부적(-)인 영향이 있다고 한 이현기(2012)를 토대로 자원봉사활동과 우울 간의 영향력에서 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는 직업활동이 있는 대상자와 없는 대상자를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SPSS의 다중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Baron과 Kenny(1986), MacKinnon 외(2002)의 Sobel test를 병행하는 방법이 지난 30년여 동안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이 방법은 연구모형에서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Preacher & Hayes, 2008). 이에 반해 Preacher와 Hayes(2008)가 개발한 SPSS Indirect macro는 구조방정식모델과 같이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등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간접적인 경로를 제시하고 매개효과의 분석방법을 정교화함으로써, 최근 단순매개효과 뿐만 아니라 다중매개효과, 이중매개효과 등의 검증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Preacher & Hayes, 2008; Hayes, 2013). 이 분석법에서 매개효과의 확인은 매개효과의 유의성 결과에서 나타난 신뢰구간 내의 간접효과 값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I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이, 성별은 여성이 3,599명(52.5%)로서 남성보다 많이 분포되었으며, 일반가족이 5,076명(74.0%)로서 저소득층가구보다 많게 나타났다. 연령대는 70대 23.7%, 60대 22.0%, 40대 22.0%, 50대 19.7%, 30대 12.6% 순의 분포를 보였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3.0%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도 29.6%를 분포함에 따라, 학력차가 심함을 알 수 있었다. 종교여부는 있는 경우가 56.1%로서 없는 경우보다 높게 분포되었다.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 46.5%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 이상이 81.8%를 차지함에 따라, 대상자의 대부분이 비교적 건강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만성질환여부는 있는 경우가 55.1%로서 없는 경우보다 높게 분포되었다. 직업여부는 있는 경우가 64.3%로서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음주여부는 마시지 않은 경우가 51.3%로서 마시는 경우보다 높게 분포되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6,859명)

변인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여성	3,599	52.5
	남성	3,260	47.5
저소득층가족여부	저소득층가족	1,783	26.0
	일반가족	5,076	74.0
연령대	30대	861	12.6
	40대	1,507	22.0
	50대	1,350	19.7
	60대	1,512	22.0
	70대	1,629	23.7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2,033	29.6
	중학교 졸업	1,037	15.1
	고등학교 졸업	2,266	33.0
	대학교 졸업 이상	1,523	22.2
종교여부	없음	3,012	43.9
	있음	3,847	56.1

변인	구분	빈도(명)	백분율(%)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지 않다	66	1.0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1,179	17.2
	보통이다	1,562	22.8
	건강한 편이다	3,189	46.5
	매우 건강하다	863	12.6
만성질환여부	없음	3,077	44.9
	있음	3,782	55.1
직업여부	없음	2,448	35.7
	있음	4,411	64.3
음주여부	마시지 않음	3,517	51.3
	마심	3,342	48.7

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주요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이 독립변수인 신뢰는 신뢰하는 경우가 52.2%로서 신뢰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분포되었으며, 자원봉사활동여부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89.1%로서 하는 경우보다 높게 분포되었다. 매개변수인 가족관계만족도는 7점 척도로서, 평균이 5.567(표준편차 .810)로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우울은 0점에서 29점까지 나타났으며, 평균은 2.911로서 우울수준은 비교적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 변수들에 대한 정규성 검증을 위해 왜도와 첨도 등을 살펴본 결과, 정규분포의 기준값인 왜도 2 이하, 첨도 4 이하의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이들 변수들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변수명	빈도	유/무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신뢰	6,859	신뢰안함(0) 신뢰함(1)	3,282	0	1	-	-	-0.086	-1.993
자원봉사활동여부	6,859	안함(0) 함(1)	6,111	0	1	-	-	1.909	3.296
가족관계만족도	6,859	-	1	7	5.567	.810	-1.077	1.273	
우울	6,859	-	0	29	2.911	3.880	1.646	2.687	

3. 우울에 대한 변수들의 영향력

우울에 대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과 다중공선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은 모든 변수들에서 VIF가 2.5 미만이 나옴에 따라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 모형 1은 설명력(R^2 값)이 17.1%, 수정된 R^2 값은 .170, F변화량은 128.302 ($p < .001$)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인 신뢰에 대한 β 값이 $-.055$ ($p < .001$)로 나타남에 따라, 신뢰가 높을수록 우울이 낮아지는 부적(-)인 영향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자원봉사 활동여부는 우울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는 연령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우울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상태는 β 값이 $-.265$ ($p < .001$)로서 우울에 부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게 나타났으며, 저소득층가족일수록, 성별이 여성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직업이 없을수록, 만성질환이 있을수록, 음주를 하지 않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모형 2에서는 가족관계만족도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22.4%, 수정된 R^2 값은 .223으로서 모형 1보다 증가하였으며, F변화량은 164.679 ($p < .001$)로 나타났다. 신뢰의 β 값은 $-.042$ ($p < .001$), 가족관계만족도의 β 값은 $-.240$ ($p < .00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통제변수는 모형 1에서 우울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종교여부는 모형 2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형 1에서 영향이 없게 나타난 연령은 β 값이 -1.980 ($p < .05$)로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표 3. 우울에 대한 영향력

변수명	모형 1		모형 2	
	β	t	β	t
(상수)		20.892		29.660
성별	-.054	-4.248***	-.039	-3.172**
저소득층가족여부	-.112	-8.711***	-.092	-7.403***
연령	-.027	-1.542	-.034	-1.980*
학력	-.076	-4.928***	-.061	-4.071***
종교여부	-.025	-2.205*	-.011	-1.028
건강상태	-.265	-18.902***	-.231	-16.909***
만성질환여부	.034	2.384*	.032	2.338*
직업유무	-.050	-4.166***	-.047	-4.095***
음주여부	-.024	-1.941*	-.034	-2.817**
신뢰	-.055	-4.899***	-.042	-3.870***
자원봉사활동여부	-.004	-.369	.001	.069
가족관계만족도			-.240	-21.644***
R ²	.171		.224	
Adj R ²	.170		.223	
F	128.302***		164.679***	

* $p < .05$, ** $p < .01$ *** $p < .001$

4. 사회적 자본과 우울 간 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가. 신뢰와 우울 간 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는 통제변수를 고려한 상태에서 SPSS Indirect macro를 활용하여 Preacher와 Hayes(2008)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신뢰와 우울 간 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신뢰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2의 a와 b). 다음으로 매개효과를 확인해 본 결과, 매개변인인 가족관계만족도는 신뢰와 우울 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의 c).

표 4. 주요 변수 간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계수	S.E	t값
신뢰 → 우울(매개변수 투입 전)	-.4230	.0864	-4.9068***
신뢰 → 우울(매개변수 투입 후)	-.3234	.0837	-3.8799***
신뢰 → 가족관계만족도	.0874	.0190	4.5983***
가족관계만족도 → 우울	-1.1401	.0531	21.4658***

*** $p < .001$

다음 단계는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으로,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 절차를 적용하여 분석을 통해 유의성을 확인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은 5,000번 실시하였다. 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표 5>와 같이 신뢰는 가족관계만족도를 거쳐 우울로 가는 경로($B = -.0996$)는 95% 신뢰구간에서 BC(-.1459 ~ -.0561)가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가족관계만족도는 신뢰와 우울을 매개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2. 신뢰의 매개효과 검증(***: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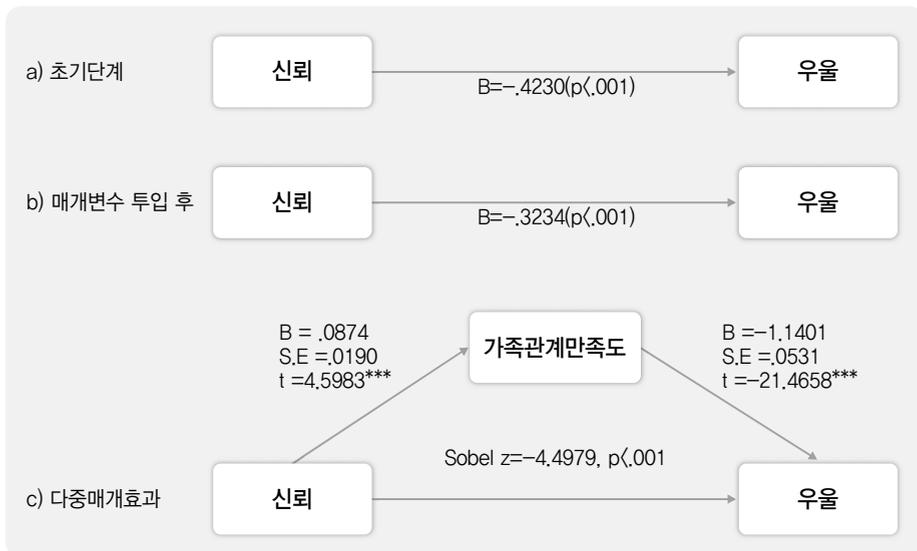


표 5. 신뢰와 우울 간 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매개경로	매개효과			R ²	F
	B	SE	BC 95% CI		
신뢰 → 가족관계만족도 → 우울	-.099	.0228	-.1459 ~ -.0561	.2243	164.9567***

*** $p < .001$

나. 자원봉사활동과 우울 간 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통제변수를 고려한 상태에서 SPSS Indirect macro를 활용하여 Preacher와 Hayes(2008)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과 우울 간 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직업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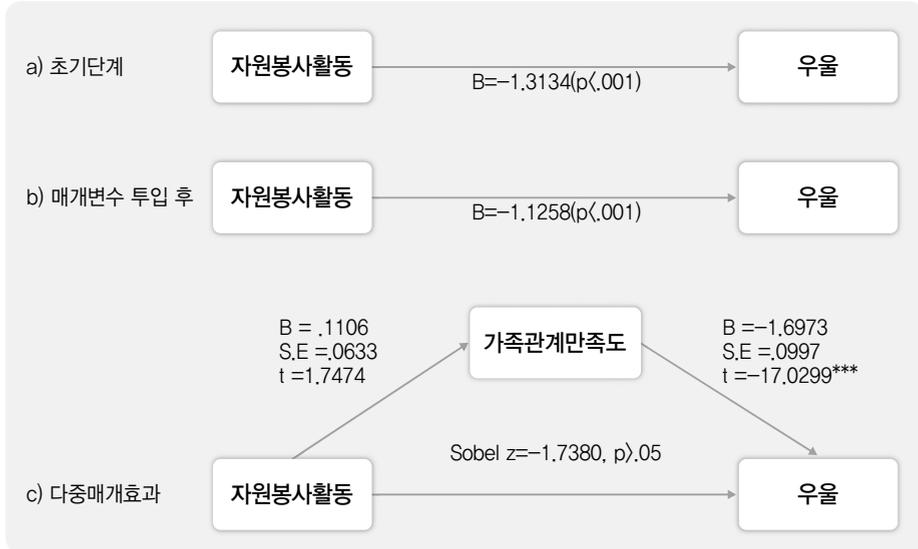
1) 직업이 없는 대상자의 자원봉사활동과 우울 간 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분석결과, 직업이 없는 대상자의 자원봉사활동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3의 a, b). 다음으로 매개효과를 확인해 본 결과, 매개변인인 가족관계만족도는 자원봉사활동과 우울 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의 c).

표 6. 비취업자의 주요 변수 간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계수	S.E	t값
자원봉사활동 → 우울(매개변수 투입 전)	-1.3134	.3294	-3.9868***
자원봉사활동 → 우울(매개변수 투입 후)	-1.1258	.3117	-3.6117***
자원봉사활동 → 가족관계만족도	.1106	.0633	1.7474
가족관계만족도 → 우울	-1.6973	.0997	-17.0299***

* $p < .05$, *** $p < .001$

그림 3. 비취업자의 자원봉사활동의 매개효과 검증(***: $p < .001$)



다음 단계는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으로,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스트스트래핑 절차를 적용하여 분석을 통해 유의성을 확인하였으며, 부스트스트래핑은 5,000번 실시하였다. 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표 7>과 같이 자원봉사활동은 가족관계만족도를 거쳐 우울로 가는 경로($B = -.1876$)는 95% 신뢰구간에서 BC(-.3765 ~ .0187)가 0을 포함함에 따라, 직업이 없는 대상자의 가족관계만족도는 자원봉사활동과 우울을 매개하지 않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표 7. 비취업자의 자원봉사활동과 우울 간 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매개경로	매개효과			R ²	F
	B	SE	BC 95% CI		
자원봉사활동 → 가족관계만족도 → 우울	-.1876	.1013	-.3765 ~ .0187	.1947	116.9447***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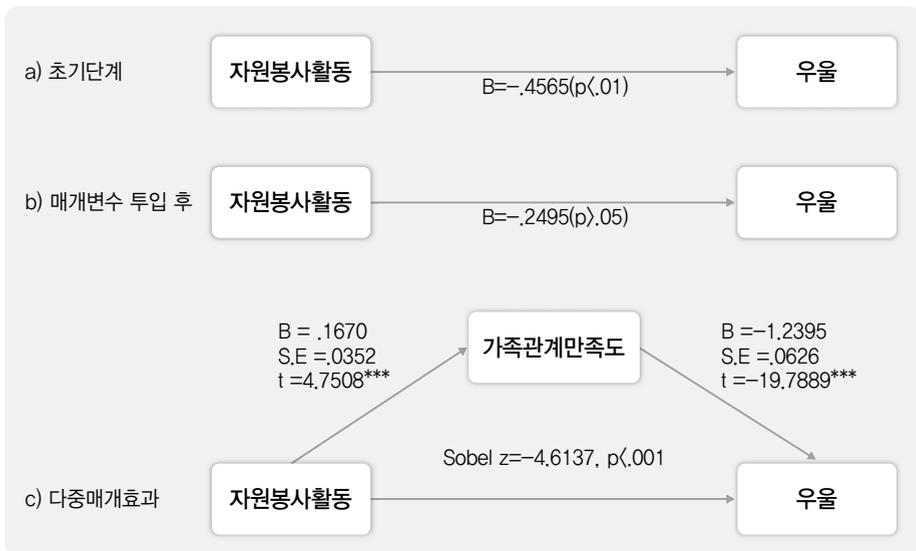
2) 직업이 있는 대상자의 자원봉사활동과 우울 간 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분석결과, 직업이 있는 대상자의 자원봉사활동은 매개변수를 투입하기 전에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나, 매개변수를 투입한 후에는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4의 a, b). 다음으로 매개효과를 확인해 본 결과, 매개변인인 가족관계만족도는 자원봉사활동과 우울 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의 c).

표 8. 취업자의 주요 변수 간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계수	S.E	t값
자원봉사활동 → 우울(매개변수 투입 전)	-.4565	.1525	-2.9938**
자원봉사활동 → 우울(매개변수 투입 후)	-.2495	.1465	-1.7027
자원봉사활동 → 가족관계만족도	.1670	.0352	4.7508***
가족관계만족도 → 우울	-1.2395	.0626	19.7889***

** $p < .01$, *** $p < .001$

그림 4. 취업자의 자원봉사활동의 매개효과 검증 (***: $p < .001$)



다음 단계는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으로,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스트스트래핑 절차를 적용하여 분석을 통해 유의성을 확인하였으며, 부스트래핑은 5,000번 실시하였다. 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표 9>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은 가족관계만족도를 거쳐 우울로 가는 경로($B=-.2070$)는 95% 신뢰구간에서 BC(-.3040 ~ -.1163)가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직업이 있는 대상자의 가족관계만족도는 자원봉사활동과 우울을 매개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표 9. 취업자의 자원봉사활동과 우울 간 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매개경로	매개효과			R ²	F
	B	SE	BC 95% CI		
자원봉사활동 → 가족관계만족도 → 우울	-.2070	.0476	-.3040 ~ -.1163	.1791	170.0314***

*** $p < .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3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신뢰와 자원봉사활동 등의 사회적 자원과 우울 간의 영향관계에서, 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확립해봄으로써, 그들의 우울을 완화시키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서 신뢰와 자원봉사활동으로 구성된 사회적 자원, 매개변인으로 가족관계만족도, 그리고 종속변수로서 우울을 설정하고, 이들 간 기술통계분석, 회귀분석, 그리고 SPSS Indirect macro를 수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회귀분석결과, 통제변수 중에서는 건강상태가 우울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으며, 저소득층가족일수록, 성별이 여성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직업이 없을수록, 만성질환이 있을수록, 음주를 하지 않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신뢰와 자원봉사활동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신뢰가 우울에 영향이 있다는 결과는 이진향 외(2011), 엄태완(2012), 오현옥(2014), Crosnoe(2004)과는 동일한 반면, 최미영(2008), 정윤옥(2014)과는 상이한 결과였다.

자원봉사활동이 우울에 영향이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김은령(2013), 오현옥(2014), 정은희와 강상경(2014), Thoits와 Hewitt(2001), Li와 Ferraro(2005), Brown 외(2008)와 동일하였으나, 이진향 외(2011)와는 상이한 결과였다.

셋째, 가족관계만족도는 신뢰와 우울 간을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가족관계만족도는 직업이 있는 대상자의 자원봉사활동과 우울 간의 영향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직업이 없는 대상자의 자원봉사활동과 우울 간에는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관계만족도 요인이 신뢰와 우울 간 또는 직업이 있는 대상자의 자원봉사활동과 우울 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바, 가족관계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실천적·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는 신뢰가 가족관계만족도에 영향이 있다고 한 배경희와 김석준(2012)와 동일했다. 직업이 있는 대상자의 자원봉사활동이 가족관계만족도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김동배 외(2010), 배경희와 김석준(2012) 등과 동일했다. 또한 가족관계만족도가 우울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송지은과 Marks(2006), 이승원 외(2008), 윤지은과 전해정(2009) 등과 동일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함의를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우울에 영향이 있다는 본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의 신뢰를 향상하는 것을 제언한다. 따라서 신뢰를 향상시키시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공식적·공식적 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지역사회 행사에 개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복지의 네트워크 구성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사회단체 간에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직업이 없는 대상자와 있는 대상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직업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모두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몇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즉, 본 연구결과가 대부분의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는 점과 우리사회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간과할 문제가 아니라고 여겨진다. 자원봉사자의 소진(burn-out)에 대해 연구한 Wilson과 Musick(2000)에 의하면, 소진이 나타나는 이유로서 낮은 활동 만족과 참여동기, 조직특성, 봉사활동의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에게 맞지 않아 흥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기여와 동기를 강화시켜 주거나 증대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자원봉사활동의 실천이 보다 확산될 수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이나 유인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직업이 있는 경우, 자원봉사활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가족관계만족도가 그들 간을 매개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가족관계만족도라는 매개요인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한 결과이면서 동시에 우울을 낮출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직업이 있는 대상자인 경우에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할수록 가족관계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우울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우리사회의 낮은 자원봉사활동을 높이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족관계만족도가 신뢰와 우울 간을 매개한다는 것은 우울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임을 강조하게 되며, 따라서 가족관계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넷째, 신뢰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가족관계만족도가 그들 간을 매개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가족관계만족도라는 매개요인이 신뢰로 인한 결과이면서 동시에 우울을 낮출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먼저, 우리사회의 낮은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으로 인해 우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것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가족관계만족도가 신뢰와 우울 간을 매개한다는 것은 우울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이 신뢰를 향상시키는 것과 가족관계만족도를 높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임을 강조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낮은 신뢰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가족 간의 관계를 만족스럽게 유지함으로써, 우울을 낮출 수도 있다. 이에 우울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서 가족관계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제안한다. 특히, 배우자는 서로 간에 친구이자 동반자이며, 그 누구보다 친밀한 대상이므로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는 매우 중요하다. Carstensen 외(1995), Cooney와 Dunne(2001)은 신혼기의 부부관계만족도는 중년기 및 노년기의 삶의 질을 예측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족관계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언으로는 신혼기부터 부부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가족생활교육을 확대, 보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자녀 또는 손자녀의 양육은 자녀 및 부부관계에 있어서 안녕감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자녀 및 손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 가족캠프 프로그램이나 세대통합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를 활용함에 따라 우울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관계를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즉, 사회적 자본의 요소로서 패널에서 제공하는 신뢰와 자원봉사활동만을 선정하여 분석을 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설문지 작업을 등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선행연구와 같이 신뢰, 사회참여, 네트워크 등으로 구분하여 수행하는 것과 가족관계를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관계, 주양육관계, 공동양육관계 등 다양한 관계 요인들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우울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우울의 평균이 2.911로서 낮고, 자원봉사활동의 빈도가 89.1%로서 높게 편중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우울과 자원봉사활동의 분포를 적절히 분포시켜 분석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우울에 대한 다양한 요인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태를 추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우울을 구성하는 다양한 변인들 간의 선행 영향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송진영은 KAIST에서 정보통신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경기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서울 기독교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군포시에서 노인재가센터를 운영 중이며 성결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장애인, 노인, 여성 분야의 사회복지실천부문과 사회복지방법론 등이다.

(E-mail: jysong4@daum.net)

참고문헌

- 강영배, 김기현(2004). 왜 장래 직업을 희망하지 않는가: 고등학생들의 직업미결정성향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4(3), pp.1-2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4). 50대 이상 중노년층의 우울증 주의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정보분석실, 정보전략분석팀, 2014년 10월 24일 보도자료.
- 고승덕, 손애리, 최윤신(2001).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 6(1), pp.3-15.
- 김교현(2004). 한국청소년의 우울과 자살. *한국심리학회지*, 10, pp.55-68.
- 김동배, 박은영, 김세진(2010). 손자녀 주양육자 및 공동양육자의 사회참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4), pp.183-209.
- 김세진, 문수경(2013). 노인일자리아업 참여노인의 참여기간, 가족관계만족도, 참여만족도 간의 관계 검증. *한국가족관계학회*, 18(1), pp.115-130.
- 김은령(2013). 만성 관절염 노인환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 간의 관계에 미치는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 효과. *보건과 사회과학*, 33, pp.59-83.
- 김진영(2009). 한국 성인 집단에서 연령과 우울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 26, pp.89-113.
- 문영주(2011). 사회복지조직의 사회적 자본 척도구성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2(3), pp.381-407.
- 박금자, 이경혜(2002). 중년여성의 우울 구조모형. *여성건강간호학회지*, 8(1), pp.69-84.
- 박순미(2001). 조직의 사회적 자본이 새로운 지적자본 창출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전남.
- 배경희, 김석준(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가구소득과 직업유무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자본 조절효과 검증. *한국사회복지학*, 64(3), pp.5-27.
- 백용운, 이태숙(2010). 노인 부양스트레스가 가족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4), pp.115-136.
- 서병숙, 신호식(1994). 노부의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자아존중감, 심리적 손상간의 인과 모형. *한국노년학*, 14(2), pp.121-132.
- 손용진(2010). 사회자본이 도시와 농어촌 노인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인 자녀 관계망 및 사회적 관계망을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12(3), pp.311-339.

- 송지은, Marks, N. F.(2006).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부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미국 종단자료의 분석. *한국노년학*, 26(3), pp.581-599.
- 송진영(2011). *노인복지론*. 서울: 나눔의집.
- 안지선, 전해정(2012). 중년기 은퇴로의 전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성차: 가족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1), pp.65-85.
- 양옥경(2001). 가족관계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8, pp.119-147.
- 엄태완(2012).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 및 지역사회통합과 우울의 관계. *보건사회연구*, 32(3), pp.92-121.
- 염소림, 최유석(2014). 가정내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4(8), pp.255-266.
- 오현옥(2014). 신체활동 참여노인들의 사회자본과 우울 및 삶의 질. *한국체육학회지: 인문 사회과학*, 53(3), pp.535-547.
- 유정현, 성혜영(2009). 노년기 우울에 대한 가족관계만족도의 중재효과. *한국노년학*, 29(2), pp.717-728.
- 윤지은, 전해정(2009).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상태와 정신건강: 소득수준과 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노년학*, 29(2), pp.743-759.
- 이경성(2001).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 6(2), pp.97-119.
- 이승원, 김동배, 이주연(2008). 중·고령자의 은퇴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1), pp.107-125.
- 이재열(2006). 지역사회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학*, 8(1), pp.33-67.
- 이진향, 박기수, 김록범, 김봉조, 전진호(2011). 개인수준의 사회적 자본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농촌의학, 지역보건*, 36(2), pp.73-86.
- 이현기(2012). 노인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생태환경 변수의 효과: 노화의 일반생태학 이론을 적용하여. *한국노년학*, 32(3), pp.777-800.
- 정은희, 강상경(2014). 자원봉사와 우울 귀적의 종단적 관계: 세 연령집단 간 다집단 비교 사회복지연구, 45(1), pp.203-230.
- 조규영, 전해정(2011). 부양자 역할로의 전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가족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1), pp.117-141.

- 조성남(2004). *에이지 붐 세대: 고령화 사회의 미래와 도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진미정, 이순형, 김창대(2009). *탈북인의 사회관계망과 사회적자본*. 서울: 학지사.
- 최미영(2008). 노인우울에 미치는 동네효과와 사회적자본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8, pp.25-46.
- 추지은, 이희진, 윤청하, 조한익, 황지윤, 박윤정(2014). 만 40세 성인의 우울기분과 생활습관과의 관계.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43(5), pp.772-783.
- 통계청(2013). 2013년 사망원인 통계.
- 통계청(2014). 2013년 자원봉사현황(성인).
-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1). 2010노인일자리사업참여노인 실태조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Baron, R.,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pp.1173-1182.
- Battle, J. (1978).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Report*, 42, pp.745-746.
- Bourdieu, P. (1983). The Forms of Capital. pp.241-258 in J.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N.Y.: Greenwood Press.
- Brown, S. L., Brown, R. M., House, J. S., Smith, D. M. (2008). Coping with spousal loss: Potential buffering effects of self-reported helping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6), pp.849-861.
- Carstensen, L. L., Gottman, J. M., Levenson, R. W. (1995). Emotional behavior in long-term marriage. *Psychology and Aging*, 10, pp.140-149.
- Coleman, J. S. (1990). *The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Cooney, T. M., Dunne, K. (2001). Intimate relationship in later life: Current realities, future prospects. *Journal of Family Issues*, 22, pp.838-858.
- Crosnoe, R. (2004). Social capital and the interplay of families and school.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 pp.267-280.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New York: Guilford Press.

- Helliwell, J. F. (2007). Well-being and social capital: Does suicide pose a puzzle?. *Social Indicators Research*, 81(3), pp.455-496.
-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Countr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i, Y., Ferraro, K. F. (2005). Volunteering and depression in later life: Social benefit or selection process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6(1), pp.68-84.
- MacKinnon, D. P., Lockwood C. M., Hoffman J. M, West S. G., Sheets, V. (2002). A comparison of methods to test mediation and other intervening variable effects. *Psychological Methods*, 7, pp.83-104.
- Moussavi, S., Chatterji, S., Verdes, E., Tandon, A., Patel, V., Ustun, B. (2007). Depression, chronic diseases, and decrements in health. *Lancet*, 370, pp.851-858.
- Preacher, K.,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 pp.879-891.
-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pp.385-400.
- Shrout, P. E.,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pp.422-445.
- Szinovacz, M. E. (1998). Grandparents today: A demographic profile. *The Gerontologist*, 38, pp.37-52.
- Thoits, P. A., Hewitt, L. N. (2001). Volunteer work and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pp.115-131.
- Uslaner, E. M. (2002). *The moral foundation of tru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lson, J., Musick, M. (2000). *Volunteering. Annual Reviews at www.AnnualReviews.org*. pp.1-20.
- Yang Y. (2007). Is old age depressing? Growth trajectories and cohort variations in late-life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8(1), pp.16-32.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Depress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Song, Jin Yeong
(Sungkyu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which is composed by trust and volunteer work, and depression. For this study, data were drawn from the 7th wave panel data provided at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included 6,859 persons of 30 years or more man and woma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 (1) Trust and volunteer work directly effected on depression. (2)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mediated between trust and depression. (3) In case of having a job,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mediated between volunteer work and depression. But, in case of not having a job,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didn't mediate between volunteer work and depression. Based on the results, som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to reduce depression through improving social capital and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Keywords: Social Capital, Trust, Volunteer Work, Depression,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